



《성령강림》, 안드레아 디 치오네와 자코포 디 치오네, 피렌체, 이탈리아

##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ㄷ-30, 31과 34  
(©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감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1코린 12,3ㄷ-7,12-1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47] 임하소서 성령이여  
• 봉헌성가: [142] 오소서 성령이여

**[부속가]**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소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밀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요한 20,19-23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179] 주의 사랑 전하리  
• 파견성가: [493] 살아계신 주성령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성령 강림 대축일

교회는 부활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낸다. 성령 강림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구원의  
신비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와 함께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이 완성되었음을  
경축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날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로 본다.



비오로말 콘텐츠

### ✠묵상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로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사건을 기념하고 경축합니다. 오순절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50일 뒤에 지내는 축제로서, 시나이 계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는 구원의 실현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의 현상을 거센 바람과 불꽃 모양의 혀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람과 불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 동반되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신현(神顯)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자, 사도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언어의 다양성이 동일성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와 반대되는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이름을 날려서 자신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11,4 참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십니다(창세 11,7-8 참조).

성령 강림을 통하여 언어의 동일성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도들의 사명이 세계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십니다. 이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원된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다. 특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신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태 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다.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을 통하여 절정에 이른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여야겠다. 교회는 이 예수 성심 성월에 특별히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를 바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꿇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울뜨레야 회합

### 본당 행사



울뜨레야 회합이 지난 5월 31일(금) 저녁미사 후 8시에 친교실에서 열렸다. 8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 제17차 꾸르실리스따들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체험 나눔과 앞으로의 다짐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각자 가슴 속의 작은 별을 함께 모아 큰 빛을 발하는 꾸르실리스따들”이라며 모두를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다함께 ‘데꼴로레스’를 외치며 회합을 마쳤다.



### 제11회 동중부 성령대회 “성령과 함께 하는 기쁜 삶”

제11차 동중부 성령대회가 "승리하는 성령"을 주제로 5월 26일(일)부터 27일(월)까지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버지니아, 온리, 볼티모어 기도 회장들의 개회 선언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된 성령 대회는 이들 동안 강의와 성체 현시, 기도회, 고백 성사, 성령 안수, 성령 신심 미사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동혁 베드로 신부(신시내티 한인 성당 주임)는 ‘우리는 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강의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아름다움(성령)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의 힘’ (제1강의), ‘영의 치유’ (제2강의), ‘영과 함께’ (제3강의), ‘영적 인간’ (제4강의)을 주제로 한 네 번의 강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주님을 떠난 삶은 늘 두렵고 불안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등에 사냥꾼을 태운 말처럼 항상 기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신시내티, 데이톤,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등지에서 모인 250명의 참가자들은 전 신부의 명강의를 들으며 신앙의 꽃인 ‘성령’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성령과 함께 하는 기쁜 생활을 다짐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정선화(루시아)

“이번 성령 대회를 통해 다시금 세례부터 우리 각자에게 와 계신 성령과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께 의탁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기 꺼지지 않고 이웃에게 퍼져 나갈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명숙(벨리나)

“세상 속의 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속의 나라는 유한한 존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이 제 한가운데에 오셔서, 성령님과의 결합됨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안에서 승리하는 무한한 삶의 천국을 살기 원합니다.”

안윤민(바실리오)

“초대 교회 신자들이 체험한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창’을 통해 ‘하느님의 영’과 만나고 그리스도와 ‘결합과 공생’의 힘으로 살아가야 함을 깊이 새깁니다. 이 거룩한 영은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놓고 우리에게 은총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백내승(올리안나)

“거룩한 영이 저희에게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치유를 이루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지, 그 틀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은영(프란체스카)

“내 안에서 참 내가 살게 하려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되고 구원됩니다. 모세가 떨기 나무 아래에서 거룩한 영을 체험한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보다 주님의 은총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삶 전체를 성령으로 채워 주소서.”

강지우(소피아)

“하느님의 사랑이 봉사자들을 통해 내려와 신자들 각자의 마음을 하나 하나 터치해 주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 해 열리는 성령 대회로 인해 해마다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세원(안나)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참 모습을 하느님 안에서 재발견하여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던 태초 때의 모습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음을 얻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사는 것을 재인식하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승평(빈센치오)

“성령을 품고, 성령을 등에 업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 없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전통적 신부님의 깊은 성찰과 명쾌한 강의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수(이사벨라)

“주님께서는 저희를 늘 부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늘 깨어(Vigilate) 있으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영이 다투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찬미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길태연(마리아)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이 눈 먼이나 다름없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 진정한 사도로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조혜원(글로리아)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서두르시며 주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정확히 내게 오시는 거룩한 영, 언제나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께 찬미 영광 드립니다.”

최숙자(마리아나)

“거룩한 영과 하나된 내 삶이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넘어지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일어서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천국을 만들어 가며, 초대 교회의 뜨거운 사랑의 체험을 되찾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의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성령께 의탁합니다.”

이은숙(테레사)

“신부님 강의 중에 ‘죄가 없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싸우며, 애를 쓰는 나를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죄구나 하는 죄의 양면성을 깨달았습니다.(오 복된 탓이요.)”

#### ● 불우이웃 돕기 야드세일 -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복지부(부장 김진석 마지아) 주관으로 실시된 ‘불우이웃 돕기 야드세일’이 지난 1일(토)과 2일(일) 이틀 간 친교실에서 열렸다. 작년보다 한 달 가량 늦어져 더워진 날씨 탓으로 올해는 친교실에서만 진행되었다. 복지부 봉사자들은 “물품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정리를 도와 주신 본당 레지오, CLC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물품 도네이션이 작년보다 적어서 우려했지만 지난 해와 비슷한 액수가 모였다. 수익금 \$3,841.10 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 PENTECOST SUNDAY June 9, 2019

## Come Holy Spirit!

<바로보실 콘텐츠>

The feast of Pentecost came nine days after Jesus had ascended into Heaven. The disciples and Mary were praying together when the Holy Spirit suddenly came with the sound of a huge wind and what looked like flames or fire coming down on each of them. The

apostles went right out and began to preach and teach people about Jesus.

The Holy Spirit comes to us in Baptism and lives in us whenever our souls are in a state of grace(when we don't have any serious sins.) He comes into us more whenever we receive a Sacrament, especially Confi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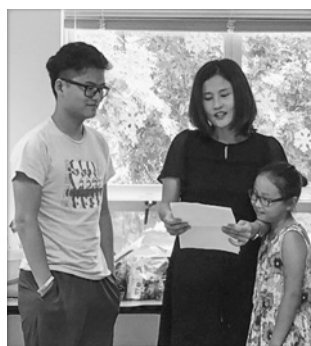
He helps us do what is right and serve God using all the gifts He gives us. The Holy Spirit, who is the third Person of the Blessed Trinity, draws us closer to God the Father and Jesus.

Pray to the Holy Spirit every day to help you to do everything for God. Then see how your life changes!

<<https://www.thekidsbulletin.com>>

CCD -News

## First Communion Class Workshop June 1, 2019



“Do this in Memory of Me” (Luke 22:19) Says Jesus.....

With this command from Jesus in our thoughts, hearts, and spirits, the 2019 First Communion Workshop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on June 1(Sat).

Through the Lord's blessing of the beautiful, the enchanting weather, and 99% First Communion Communicants participation, the workshop was a joyful gathering of Jesus' "Great Banquet," His Eucharistic, Thanksgiving Table Preparation Event.

Moreover, the parents loving letter sharing session, upper class student's kind interaction with younger students, and of course, Fr. Kang's charming, passionate discourse with students and parents, all the more made an impressive First Communion Workshop, well prepared for the upcoming First Holy Communion Mass on June 16, 2019(Sun).

*Thank You, Jesus in Holy Eucharist...*

*Thank You, Fr. Kang...*

*Thank You, Parents and Students...*

• Rosaria Shin, Catechist

### ANNOUNCEMENT

#### 1 2019-2020 Sunday School Registration

- When: Sundays, May 19 - June 16
- Where: Hasang building lobby

#### 2 June 9 : Last Day of Sunday School

- 6/12 : Last Confirmation Class of the 1<sup>st</sup> Semester

#### 3 First Holy Communion Class

- 6/12(Wed.), 7pm-9:10pm | Family Interview with Fr. Kang
- 6/14 (Fri.) | Sacrament of Baptism during 7:30pm Mass
- 6/15 (Sat.) | 1<sup>st</sup> Penance (10am), Rehearsal (11:30am)
- 6/16 (Sun.) | 1<sup>st</sup> Holy Communion during 11:40am Mass

**1 단체장 회의**

• 일시: 6월 9일(일) 오전 11:30(B-3,4)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6월 9일(일) 오후 1시(B-3,4)

**3 독서단 정기총회**

• 일시: 6월 9일(일) 오후 1시(성당)  
 • 대상: 평일미사, 토요 특전미사, 주일 8시, 10시 미사 독서자 및 해설자  
 • 문의: 강지우 소피아 (571)201-6819

**4 주일학교 종강**

• 일시: 6월 9일(일)

**5 성인 견진 예식**

• 일시: 6월 9일(일) 오후 2:30  
 • 장소: Cathedral of St. Thomas More(알링턴 주교좌 성당) 오후 1:30까지 주교좌 성당 지하실로 대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6 복사단 모임**

• 일시: 6월 9일(일) 오후 1시(B-1,2)

**7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6월 9일(일) 오후 1시

**8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일시: 6월 14일(금), 미사 후 묵주기도

**9 첫 영성체식**

• 첫 영성체를 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6월 16일(일) 오전 11:40 미사 중  
 • 축하식: 미사 후 하상관(#106)

**10 효도 한마당 행사**

• 일시: 6월 16일(일) 오전 11:40(친교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30입니다.)

**11 2019 - 2020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비: \$80 / 6월 16일 마감  
 • 장소: 하상관 교무실 (일요일 오전 10시 - 오전 11:30)

**12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6월 16일(일) 오전 11:30(친교실)

**13 알링턴 교구 주교 집전 다민족 미사 및 성가대원 모집**

• 다민족 미사: 6월 21일(금) 오후 7시  
 • 장소: St. James Catholic Church  
 905 Park Ave. Falls Church, VA 22046  
 • 다민족 미사를 위해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 다민족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 문의 및 성가대원 신청: 김문자 마리아 (703)615-9910

**14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뉴저지 일일 성지 순례**

• 자연속에서 티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하는 은총의 자리에서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7월 13일(토) 오전 5시 출발 / 오후 10시 도착  
 • 장소: 뉴저지 파티마 성지  
 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 참가비: 80불(아침, 점심과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비 포함)  
 • 신청: 친교실(신청순 52명)  
 (참가비는 현금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 루카 (703)254-7963



성령의 열매

바오로딸 관현즈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9일(일)	성령 강림 대축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독서단 정기총회(오후 1시, 본당), 베드로회 모임(오후 1시, A-1,2), 주일학교 종강, 교사회의(오후 1시), 복사단 모임, 성인 견진식(오후 2시, 주교좌 성당)
10일(월)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11일(화)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선거,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하상관)
12일(수)	연중 제10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바오로 소공동체 (오후 8시)
13일(목)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4일(금)	연중 제10주간	평일미사/성소를 위한 미사(오후 7:30), 25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오후 8시), 바오로 형제모임(오후 8시)
15일(토)	연중 제10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6월 16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효도 한마당(오전 11:30,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 첫 영성체(오전 11:40 미사 중), 첫 영성체 축하식(하상관 #106)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0주간: 시편 46-54, 1 코린 13

KACM TV 하이라이트

6월 13일(목)	오후 5:00-6:00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14일(금)	저녁 8:00-9:00	
6월 16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뉴스  
 • 특강: 제11차 동중부 성령대회 특강. 전통혁 베드로 신부 "승리하는 성령" (1)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6월 2일(부활 제7주일)

주일헌금	\$8,017.00
교무금	\$7,29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070.00
특별헌금	\$0.00
2차헌금	\$2,572.00
<b>합계</b>	<b>\$20,949.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티파노), 김경화, 온규희(벌바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지(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넬),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티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베),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백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헬(마카렐라), 최용승(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민수 리(호산)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정태 요셉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703-679-8959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